

루틀리지컴패니언 무형문화유산

스티븐 엔겔스만(Steven Engelsman)



루틀리지컴패니언무형문화유산

미셸 스테파노(Michelle L. Stefano) 및 피터데이비스(Peter Davis) (편집.)

(런던/뉴욕: 루틀리지), 2017년). xxiii + 502 쪽. ISBN 978-1-138-86055-1.

●스티븐 엔겔스만 박사(Dr. Steven Engelsman)

비엔나 세계박물관 관장

특정 지식이나 학문 분야에 입문하는 왕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루틀리지 컴패니언(Routledge Companions)*이다. 이 시리즈는 리더십과 경영 분야부터 언어철학, 만화 또는 공상 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시리즈는 전 세계의 주요 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술한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구성된다. 마침내 올해에 루틀리지는 *무형문화유산의 동반자(Companion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출판했다. 이 책의 분량은 500

페이지가 넘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민속 박물관(American Folklife Centre)의 미셸 스테파노(Michelle Stefano)와 영국 뉴캐슬 대학(Newcastle University)의 피터데이비스(Peter Davis) 박물관학 명예 교수가 편집을 담당했다. 이 책은 가장 환영 받는 문학 작품인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및 보호 기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이 *루틀리지 컴패니언(Routledge Companion)*에는 54명의 저자가 쓴 38개의 논문이 들어 있으며,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패러다임의 기원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다. 제2부는 '현실 확인(reality check)'이라고 불리며 무형문화유산 및 그 보호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를 다룬다. 로사벨 보스웰(Rosabelle Boswell)이 보여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과거의 선물로서의 무형문화유산'과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과거 청산을 위한 비용지불의 수단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 간의 대조적인 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해결해야 할 상당히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 제3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미국, 인도, 태국 및 일본의 사례 연구도 7건이 포함되어 있다. 제4부는 무형문화유산과 장소 및 경관, 즉 무형문화유산이 특정 장소와 연결되는 방식을 다룬다. 제5부는 무형문화유산과 박물관 및 기록 보관소(아카이브)를 다룬다. 짧은 기고문에서 바바라 키르셴블라트 김블레트(Barbara Kirshenblatt-Gimblett)은 고대 유대교 회당의 유형유산들을 새로 개장한 바르샤바의 폴린 박물관에 전시할 때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제6부는 특히, 생태박물관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저자의 50%는 유럽 출신이고, 25%는 북미 출신이며, 25%만이 그 외 나머지 국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 연구(50%)가 유럽이나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의 사례는 각각 25%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무형유산이 유럽과 북미 이외의 곳에 있는데도, 유럽과 북미의 학문적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이 동전의 양면(정체성의 확립과 관광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펼치는 보호 정책 대 학계와 학문, 그리고 인간의 표현과 문화)이 가진

차이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접근법과 집중 간의 차이이다. 편집자인 미셸 스테파노(Michelle Stefano)가 미국의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배후 실력자*이자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의 소장인 리차드쿠린(Richard Kurin) 박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점은 매우 분명하게 설명된다. 쿠린은 미국의 원주민 문화집단의 문화에 대한 학술적 및 제도적인 참여의 역사는 1848년 스미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창립과 미국 민족학청(American Bureau of Ethnology)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도권의 참여는 워싱턴의 한 쇼핑몰에서 매년 개최되는 민속 축제를 통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형태의 기념행사와 유산 보호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쿠린의 말에 따르면 문화를 공인화하는) 국가 관료기구의 창설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심지어 영국과 같이 강한 원주민(first nations)과 토착민이 있는 과거 영연방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국가들 중 누구도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서명국이 되지 못했다.



Edited by Michelle L. Stefano and Peter Davis

우리가 현재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인간의 표현 양식일 것이다.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인간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음식을 요리하고 중요한 사건을 기념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무형문화유산이 목록 작성과 보호 및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문화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 유형유산이 박물관 소장품(컬렉션), 기념물 및 유적지 등의 형태로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전부터 보존되어 온 것에 비해 무슨 이유에서 무형문화유산은 21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특히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을 통해) 관심을 끌게 되었는가? 자넷 블레이크(Janet Blake)는 유네스코 2003 *협약*으로 이어진 발전에 대한 그녀의 발제문에서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 이유는 학문적 담론 및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가 정부의 유산 보호 패러다임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온 유형유산에 대한 유럽의 선호 때문이었다. 또한 유럽은 공동체의 참여, 인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학문적 관심 분야를 더 오랫동안 선호했다. 자넷 블레이크는 문화가 고고학적 유물과 최고급 작품으로부터 삶의 방식, 사회 조직, 가치관 및 신념 체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1982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문화정책회의(Mondiacult World Conference)로 돌아가서 문화 유산 개념과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다. 여기에 나중에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통합 및 인권이라는 개념이 더해져서 유네스코의 문화 보호 계획과 유엔개발계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의제가 되었다. 1990년대 이래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의 융성은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제6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며, 문화와 개발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들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생태 박물관(eco-museums)에 관한 두 가지 사례가 등장한다. 크로아티아의 로빈(Rovinj)에 있는 바타나 박물관(Batana Museum)은 선박(보트) 제작 기술, 작은 보트를 이용한 고기잡이, 어부들의 합창 및 물고기를 활용한 현지 요리법이라는 (무형 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피에몬테(Piemonte) 지역의 작은마을인 코르테밀리아(Cortemilia)에서는 계단식 포도원과 폐허가 된 밤 건조 시설을 재건하여 전통적인 수공예품을 되살려냈다. 저자 Donatella Murtas가 요약한 바와 같이, *코르테밀리아 사람들은 생태 박물관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보장하는 길을 발견했다.* 성공이 가져다 준 혜택은 국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 관광 증가, 더 많은 수입 창출 ...등등이었다.

*루틀리지컴퍼니언*의 출판으로 무형문화유산은 확실히 새로운 차원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저자는 하나의 작은 결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서, 편집자들이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목록 작성 및 유적지에 대한 보호 및 등재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도록 하는 데 일본, 중국 및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과소 평가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국가에서 전통적 기술(skill)과 테크닉,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역사적 기념물을 복원하는 형식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서 역사적 소재와 현대적 테크닉을 사용하여 역사적 기념물을 복구하는 형식'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통해 문화 유산 보호의 본질에 대한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 서울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국제박물관협의회)회의와 그 이후의 학문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국제저널 무형유산*)의 구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국제 박물관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한 것은 바로 ICOM Korea,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한국 정부였다. 